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7	조사자	홍재범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작가	오영진	출간연도	1949년
내용	시경	물론 반도입업 관리인 이중생 씨 덕이 틀림없으리라 믿구 왔죠.	
	하주	젊은 양반이 추근스레 아주 몰상식허구 무례허군 그래. 주인 영감을 만나시려거든 미리 시간 약조를 허구 와야지. 아닌 밤중에 흥두깨격으루 불쑥 들어선다구 분주허신 양반을 그리 쉽사리 만날 줄 아슈?	
	시경	헛 그 참 세도가 당당허시군. 그럼 시간 약조를 단단히 허죠. 들어오거들랑 오늘 저녁 다섯시까지 경찰서 경제계루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구 있겠습니다. 만일 오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합니다.	
	하주	체포요?	
	시경	달아나진 못할 테니까……. 그럼 시간 약조를 했겠어요? (중략)	
	임표윤	(떨며) 구리개 입구에서……. 저야 뭐……. 그저 짱팬가 했죠. 그랬더니 그게 바로 형사이더군요. 저를 내리우고는 철꺼덕 사장님께 고랑을 채우고는…….	
	하주	고랑을?	
	임표윤	(여전히 떨며) 네, 그러구는 그 차에 올라타더니 손쌀같이 을지로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중부서로 가는게 틀림없습니다.	
	우씨	글쎄 무슨 이유가 있어 데려갑니까, 그들이.	
	하주	전에라도 아버지께 좋창은 건이 있었어요?	
	우씨	그 어진 양반이 뭘 했다구, 넌 상서롭잖은 말도 하는구나.	
	임표윤	그저 제 생각엔 영감이 임업사업을 도맡다시피 했는데다가 또 막대한 원조를 얻어 제지회사까지 차리게 되니까……. 아마 누가 시기를 해서 고자질이나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아, 저기 인천 가셨던 작은 아씨 들어오시는군요.	
		하연, 양장에 슈우트 케이스를 들고 하수로 등장.	
	우씨	넌, 웬일이냐, 온단 말두 없이? 글쎄 집안에 큰 걱정이 생겼구나.	
	하연	…….	
하주	아버지가, 애……. (하연, 한 곳에 목 박힌 듯이 서 있다가 케이스를 동맹이치며 히스테리칼하게 운다.)		
하연	아버지가 다 뭐야!		
우씨	왜 그러니, 하연아!		
하주	애가 미쳤어, 들어서자마자……. 이 집 상갓집인 줄 알았더냐?		
하연	언닌 알지두 못하구 왜 이러우. 어머니, 이 일을 분해 어떡해, 어머니. 언니가 그 봉변을 맞았어두 살지 못해……. 나두 나두 못살어, 어머니.		
우씨	글쎄 왜 그러니. 어서 말이나 좀 허려무나.		
하연	언닌 어쩔 테유. 나, 인, 인천서 내쫓겼어!		

하주 별장에서? 그 무슨 당찮은 소리냐, 왜 널……. 주인 아씨 어떤 놈이 나가라구 한단 말이냐.

하연 가짜야. 아버지 그 별장 주인이 아냐, 관리인을 속여 뺏은 것이 탄로났어. 그러구 이것 봐, 아버지가 신주같이 받들던 란들프도 가짜야. (손에 들었던 신문을 동댕이친다) 가짜야!

* * * * *

송달지 냉정히 생각해서 이번만은 좀 힘들거야. 뭐, 죄목이 한두 가지야지. 우선 업무보고에서 십 년도 내려두고 생산량의 십분의 일도 안 되는 걸로 보고해놨으니 이게 배임 횡령이겠다.

하주 뭣이 어째요?

송달지 거기다가 공문서 위조지! 탈세가 되지, 화는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야!

우씨 아니 그래 자네는 장인이 갇힌 것이 당연하단 말인가!

송달지 아네요, 어머니. 법적으로 따지면 말씀이지. 뭐, 거기다가 은행의 융자신청도 결국 자기 물건이 아닌 삼림을 했으니 이것도 건이 되죠……. 아마 나오시기 힘들걸요.

* * * * *

이중건 예끼! 네 애비가 나와? 사기, 횡령배임, 탈세범으루 때간 녀석이 그리 쉽게 나올 법이 어데 있으며 나라에서 내준다 쳐두 어떤 낫짝을 들구 어슬렁어슬렁 기어든단 말이나. 글썽 일권 출세한답시구 조업지전 문전옥답 다아 팔어 헤쳐놓구 그것두 모자라서 늙은 형놈의 집 한 칸마자 뺏어먹어야 올단 말이냐?

우씨 그야, 그 인들 이럴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그저 이씨 문중이 다같이 영광이나 볼까해서 그런게 아니예요. 너무 노여워 마세요.

이중건 이, 씨, 문, 중, 의, 영, 광? 헛헛……. 장관나리와 낚시질하는 게 영광이요? 계수님, 난 그런 영광 모르구두 고빨 하나 썰지 않구 육십평생을 배불리 잘살았어. 뭐, 그 녀석이 큰 사업가인 이중생 각하의 형이 초가 삼간에 살아선 자기 체모가 깎인다구? 기와집을 줄 테니 지가 증권을 몽땅 팔아버리자구? 내가 기와집에 살구 싶어 조업지전을 판줄 알어? 조실부모헌 이후론 하나밖에 없는 동기라 그돈 출입이나 헌답시고 일본놈이라 기생년이라 한무리 몰구 다니며, 소풍이니 천렵이니 닭 잡아라 소 잡아라 호령 대령해두 한번 쓴척 단척 않구설랑 혼연 대접했던 게 이 녀석 그런 정리두 은공두 몰라보고 그래 자기 돈두 아닌 내 돈으루 집 한 칸 지면서 슬쩍 자기 명의루 등길 낸다? 달지, 자넨 어떻게 생각하누? 이를테면 이게 생논 파먹는 날도적이지 안 그런가, 달지, 그놈의 돈 횡령하는 재주는 일정 때부터라네.

* * * * *

최변호사 결국 저 사람들이 문제삼는 것은 사기, 배임횡령, 공무원 위조 및 탈세범인 위대한 사업가 이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중생이만 없어지구 볼 지경이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할 수 밖에 없습쇼!

이중생 내가 없어진다?

최변호사 그렇쇼. 세상에서, 땅 위에서 없어지구 말아야쇼.

이중생 액기! 여보, 내가 죽구서야.

최변호사 헛! 헛헛! 그런게 아니와요,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事)라 아주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온. (긋속을 하고 나서) 헛, 헛 법률적으루 자살이란 그리 어려울 게 아니지, 헛헛. 상속법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이중생 헛헛, 그야. 최선생이야 상속법에는 권위자이지.

최변호사 저는 그저 영감이 서놓으신 유서……. 유서는 작성된 것으로 하여야 됩니다. 그러구 난 뒤에는 그저 유서의 내용 대루 가장 법률적으루 정확 신속히 처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영감계선 영감의 전 재산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허구, 또 차후

로 이중생씨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따라서 사업의 경험 내지 야망이 없구 법률상식 두 없는 충직한 재산관리인만 한 분 선택하십쇼그려. 영감께서는 그 뒤에 계셔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면 그만 아닙니까? 말썽 많은 이중생만 없어진다면…….

* * * * *

이중생 그래 결정됐느냐?

하주 네, 인제 곧 결정한대요.

최변호사 그야 송선생두 깊이 생각하셔야겠쥬. 말하자면 생사문제요, 인생문제라구두 할 수 있으니까.

이중생 (방으로 올라가며) 뭐 그리 심각히 생각할 게 없지. 예에또 최선생이 어디 유서 한번 다시 읽어보슈. 누락된 점이 없나.

최변호사 (낭송조로) “황천은 굶어 설피소서. 소생은 죽음으로써 전생의 모든 과오를 청산하나이다. 개과천선은 고 성현도 용납하시는 바이오니 황천은 이중생을 긍휼히 여기사 널리 용서, 용서하옵소서. 각설……. 소생의 동산, 부동산, 가옥, 유가증권을 불문하고 소생 소유의 전 재산을 모모에게 양도하오니.” 영감, 이 이름 석자가 문젠디다그려……. “소생 소유의 전 재산을 모모에게 양도하오니 모모는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처리할지니라. 제일은 현금 삼백환과 서린동 XX번지 소재 가옥 일백오십 평을 가형 이중건 씨에게 양도할 것이요, 제이는 소생이 존경하는 고문 변호사…….” 제이에게두 한 구절 넣습니다. 백씨 영감께서 꼭 넣야한다길래.

이중생 그야 그럴 것이지.

최변호사 “소생이 신임 존경하는” ……혜혜. 존경은 뻔까요?

이중생 어서 읽으슈.

최변호사 “고문 변호사 최영후에게 대한 적당한 사례금을 망각치 말것이요, 제삼은 고문 변호사 최영후는 온갖 수속상 추호도 법률적으루 미비상이함이 없기를 기할지이다. 년, 월, 일, 이중생” 이만하면 만족하십니까?

* * * * *

김의원 유언엔 전 재산을 송선생께 양도하기루 됐다쥬?

최변호사 글썬 이 점이 또 고인이 대범하시구 출중하신 점이쥬. 보통 인간 같으면 제 아무 리 미운 데가 없다구들 한들 아들딸을 한 구들 두구 어떻다구 사위에게 전 재산을 양도헌답니까? 들어보십쇼. 돌아가신 어른의 의견이……. 돈이란 건 그걸 잘 이용할 줄 알구 나라에 유익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법이다. 저 혼자 잘먹구 흥청거리구 놀라구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을 하자구 귀하기두 하구 필요두 한 것이란 말이쥬. 그러니깐 돈이란 별기보담 쓰기가 힘든 물건이라……. 하식 군으로 볼 지경이면 살아돌아온다 해도 아직 쫓 비린내 나는 삼십 살 풋내기야 나라를 위해 적당히 쓸 줄 알리 없을 터이구, 백씨 영감이니 세상 물계를 아실 리 없으니 이루 두말 할 필요조차 없구 보니, 예라 모르겠다, 그래두 믿을 만한 위인은 문중을 둘러봐도 여기 계신 송선생밖엔 없으려니……. 그래서 유서두 이렇게 쓰셨쥬. 그렇습쥬? 고인의 유지가……. 송선생…….

송달지 네- 글썬 뭐 그렇쥬.

이중생, 병풍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후수막까지 나와 귀를 기울인다.
(중략)

김의원 양심의 가책 대루 행동하신 게쥬. 그래 송선생의 희망이라구 험까, 의견이라구 험까, 어떻습니까?

송달지 의견이요?

최변호사 희망? (이중생 긴장한다)

김의원 (달지에게) 조용히 선생을 찾아 말씀드릴 일이지만 고인의 유지두 그러시다니, 우

리두 그 유지를 존중하는 의미로 송선생의 의사를 충분히 참고하여 행정당국과 사법 당국에게도 닥에 유리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아량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필요하게 쓰구 유익하게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변호사 아량?

김의원 (그냥 달지에게) 보건 시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선생이 의사라구 하시니 말씀입니다만…….

최변호사 보건 시설?

김의원 네, 우리 나라처럼 보건 시설이 불충분한 나라도 없지요. (이중생 쫄쫄했다) 그야 그럴 것이, 지금껏정은 저마다 도회지지만 개업할라구 주사 한 대두 돈 있는 이만 맞게 생겼구, 돈 몇 환 있구 없구를 귀중한 생명이 왔다갔다하지 않았습니까. 무료루 치료해주는 국립병원이 있지만, 아주 시설이 불충분하거든요.

송달지 (의외로 흥분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 공부를 시작한 것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죠. 의사란 상업이 아닙니다.

김의원 잘 알겠습니다. 판결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경솔히 말할 수 없으나 송선생의 생각을 관계당국에 보고해서 고인의 재산일량은 특별히 이 방면에 쓰시게 하시죠? (이중생 곤두박질한다)
(중략)

최변호사 암 그렇구 말구, 가족의 의사두 참작해야지.

김의원 잘 아실 분이 일부러 오해하시는 것 같구면요. 사기, 배임, 공금횡령, 탈세, 공문서 위조 등을 법적으로 청산하면 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두 남지 않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최변호사 그렇겠지만 개인 재산이야 침해할 수 없잖아요. 더욱이 이 양반에게 양도된 이상…….

김의원 그렇기에 우리는 이중생 자신이 이미 자기 죄를 자각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였으므로 고인의 소유였던 재산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우선 상속자인 송선생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만일 가족 가운데 불만이 계시면 자기 죄과를 자인하고 입증하는 고인의 유설량은 없애버리구 이중생을 다시 살려내가지구 상속자인 송달지 씨를 걸어 고소라두 하시죠.

* * * * *

송달지 하식이, 내가 왜 자네 집 재산을 물에 타버리겠나. 재산두 귀하구 아버님의 명예와 지위두 소중하지만 어떻게 나라를 속이구 법을 어긴단 말인가. 옳다구 생각하는 처사를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까지 해서야 되겠나 말일세. 우리가 그러면 누가 국가의 사업을 돕구 우리들의 후배는 어떻게 되느냐 말일세. 아버지 일만 해두 한 사람의 욕심과 주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젠가? 더구나 나 같은 위인이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구 묘한 꾀를 부르겠나? 또 아무리 내, 내 장인이래두 그럴 필요가 어딴겠나? 나는 구변이 없어 말을 잘 못하네만 하여튼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떠들 때도 아니구 장차로두 어떤 세력을 믿구 저 혼자의 이익을 위하여 날뛰어서는 안 될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은 좋겠지만 진정으루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하식이, 자넨 내가 장인을 두호하지 않는다구 나를 미워할 텐가. 그렇다구 장인을 고발할 수도 없는 놈이지만. 하식이, 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잘못이 있거들랑 기탄없이 알려주게나. 광대 같이 상복을 입구 꾸벅꾸벅 조을 수 있는 내 신세가 미련하지?

하식 형님, 고정하십쇼. 잘 알겠어요. 아버지 시대는 이미 지났어. 형님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가지구 번민할 게 뭐 있수. 형님, 우리 앞엔 우리를 새로운 독재자에게 팔아 먹으려는 원수가 있어요. 나는 팔고루 보고 왔어요. 할빈, 장춘, 그러던 화태! 어름서리가 칩니다. 형님, 우리 나라가 독립된 줄도 모르구 있는 친구들……. 어서 들어갑시다. 할 이야기가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집안 일은 아버지 일은 순리 대루 왜 나갈 테죠.

평가	<p>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는 우익계열 극작가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친일 잔재 청산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고 극적 완성도에서도 좌익계열 작품들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영진은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를 통해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의 상관 관계를 통해 해방직후의 모순된 현실 상황을 드러내 보이고,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물의 몰락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지향해야 할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희곡에서 부정적 인물군이 긍정적 인물군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설정은 해방직후 친일인사들이 재등장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 이중생은 속물적 근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 사회 기준에 어긋나 있는, 즉 정상에 벗어나 있다는 인물로서 희극적 인물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처세술을 지니고 있기에 그 힘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중생의 태도는 일제강점기때부터 늘 승리자 편에 있었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반해 이중생과 맞설 수 있는 긍정적인 인물에는 무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이 희곡의 특징이다. 그러나 결말에 가서 이중생은 몰락하고, 반사적으로 긍정적 인물군의 삶이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패배하고 이상적인 것을 대변하는 인물이 승리한다는 희극적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한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플롯을 적절히 사용한 점과 이상적인 것의 승리를 통해 풍자극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오영진은 작품 말미에 자신의 뜻을 강조하는 서사적 기능의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는 하식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왔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희극적 구조에 편입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하식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 판단 기준이 관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 말미에 하식의 등장과 더불어 진짜 이중생의 자살은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가 풍자극이 되는 데 결정적 힘이 된다.</p> <p>출처: 김재석,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자기 모순성」, 한국극예술학회 편, 『오영진』, 연극과인간, 2010, 75~100면</p>
----	--

2. 보존필요성

- 해방 직후 서울에서 매관자본가들이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지키려는 삶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희곡


3. 활용방향

- 홍보를 통해 희곡과 달리 실제 매관자본가의 실상을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오영진 (吳泳鎭, 1916년 ~ 1974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6년 평양 출생 - 1928년 양정사립고등보통학교 입학 -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항일시위 참가 - 1930년 평양공립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진입학 - 1933년 평양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 - 1935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수료. 조선어문학과 진학 - 1936년 동인들과 『城大文學』 창간. 영화동호회 조직 - 1940년 가친이 경영하는 송인상업학교 강사 겸 이사장의 비서. 조선영화주식회사 문예부 촉탁,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촉탁 - 1943년 조선인학도지원병제 반대운동에 관련되어 매형 조카 등과 함께 검거 - 1945년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위원장 조만식) 조직에 참여. 서울에서 조선영화건설본부 조직. 평양에서 예술문화협회 조직 주도. 조선민주당 창당에 참여해 중앙위원 및 조만식 당수의 측근으로 일함 - 1946년 송인중학교 강사로 복직 - 1948년 서울에 밀파된 공산당 테러리스트에게 권총 피습 - 1949년 공보처 소속 대한영화사 이사,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중앙위원회 피선. 연극학회 간사 취임. 전국대학연극경연대회 개최. 한국문화연구소 창설, 기획위원으로 취임 - 1950년 서울예술학원 강사로 취임. 오리온영화사 창설, 영화 제작에 관여. 국방부 정훈국 영화반 및 해군 정훈감실 촉탁으로 위촉. 평양 수복 후 평으로 가서 조선민주당 재건에 착수, 평양문화단체총연합회 조직, 위원장 취임 - 1951년 서울국립대학(전시 연합대학) 강사로 취임. 한국 시청각 교육회 주직, 상임간사로 취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국 차장에 취임 - 1952년 이북출신 문인, 예술인 규합해 문총 북한지부 조직, 위원장 취임. 부산에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북한지부 주최 반공 영화제 개최. 『문학예술』지 창간. 출판사 중앙문화사 창립, 국내외의 저명한 반공서적 발간. 베니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최 세계예술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 1953년 한국영화예술협회 창립 - 1954년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으로 가입, 예술원 회원으로 피선 - 1955년 서울 로터리클럽 가입 - 1956년 한국영화문화협회 상무이사 취임. 金龍 영화상 위원장 피선 - 1958년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 부위원장 피선. 국방부 정훈국 자문위원 취임. 시네마펜클럽 회장에 피선 - 1960년 문교부 저작권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국립극장 운영위원 피선. 영화윤리규정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피선. - 1961년 국무총리 문화담당 특별고문으로 위촉.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문교·사회분과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한국반공연맹 회원 - 1962년 한국민주당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분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피선 - 1963년 동아연극상 및 동아일보 신춘문에 심사위원으로 위촉 - 1964년 청룡영화상 심사위원장 위촉. 서울특별시 문화위원으로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위촉 - 1966년 국제대학 국문학과 주임교수로 취임 - 1968년 국제대학 교수직 사임 - 1974년 사망. 향년 58세
주요 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3년 일문 단편소설 <할멈>. 수필 <論介와 眞伊에 관한 소감> - 1936년 일문 단편소설 <眞相> <거울> <친구의 死後> <언덕 위의 생활자> - 1942년 시나리오 <배뱅이 굿> - 1943년 시나리오 일문 <맹진사댁 경사> - 1944년 단편소설 <젊은 용의 고향> - 1946년 가극 <시집가는 날>(1956년 이병일 감독이 영화화하면서 <시집가는 날>이라 개칭. 1957년 아시아 영화제 최우수 희극상 수상) - 1949년 희곡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1957년 <인생차압>으로 개작) - 1953년 희곡 <정직한 사기한> - 1957년 시나리오 <청년> - 1959년 시나리오 <꿈> <하늘은 나의 지붕> - 1962년 시나리오 <심청> - 1964년 라디오드라마 <비바리 서울에 오다> - 1970년 희곡 <아빠뻘을 입었어요> <모자이크 게임> <허생전>. TV드라마 <도산 안창호> - 1971년 희곡 <나의 당신> - 1972년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 - 1973년 희곡 <동천홍> - 1975년 희곡 <무회>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제4회 아시아영화제 최우수 희극상 - 1958년 부산영화제 각본상 - 1959년 釜日 각본상 - 1960년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특별상 - 1967년 한국연극영화상 - 1970년 서울신문 문화대상(각본) 및 한국연극영화 각본상
기타사항	-

※ 출처: 한국극예술학회 편, 『오영진』, 연극과인간, 2010, 387~397면.

6. 기타사항